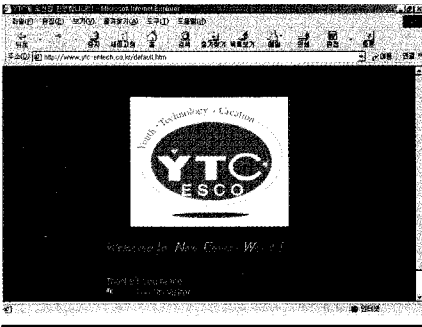


인터넷을 활용한 ESCO사업전개 동향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게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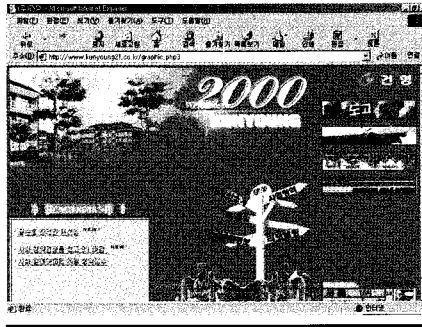
귀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ESCO사업의 진행상황은?, 목표는?,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그 가능성은?



(주)YTC EN-TECH
김기석 대표이사

www.yt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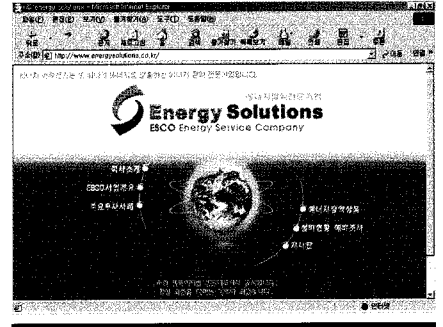
현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이용한 당사홍보와 마케팅활용을 위하여 홈페이지 업그레이드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홈페이지의 활용성이 부각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권영 리모델링 사업부
김우용 대리

www.kuryoung21.co.kr

당사는 당사의 메인 홈페이지에 리모델링사업 폴더 내에 ESCO사업의 소개 및 절감사례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시간 절감산출방식, 공사비산출 등을 도입예정입니다. 인터넷을 적극 활용할 경우, ESCO사업비의 투명성이 기대되며 ESCO에 대한 인식이 일반인들에게 빠르게 전파되리라 봅니다.



(주)에너지솔루션즈
이범용 대표이사

www.energysolutions.co.kr

지금까지는 사실상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회사홍보, 그것도 단순한 회사 알리기 및 에스코 설명에 국한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더 적극적인 홈페이지 활용 및 e-business구축을 위한 사업 검토 및 투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NAESCO INTERNATIONAL MEMBER 가입과 함께 국문, 영문화를 추구하고 동시에 내용을 UP-GRADE하여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 단순히 방문자에게 회사홍보를 하는 것에서 진일보하여 COMMUNITY에 좀더 관심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e-business와 관련하여서는 새로운 business-modeling을 접목시키기 위한 연구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세부 설명을 뒤로 미루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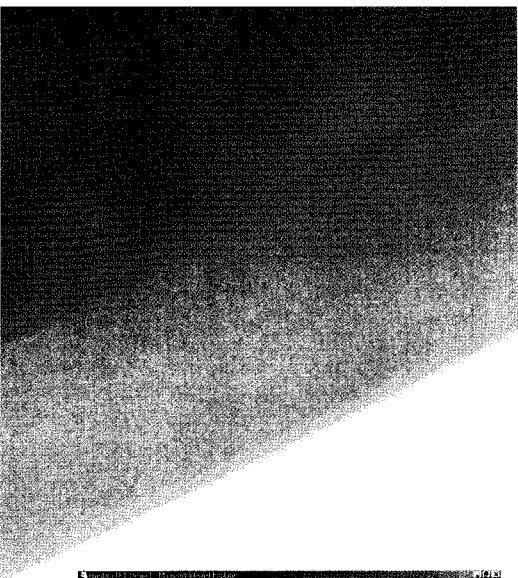


금호전기(주)
이광용 대리

www.khe.co.kr

ESCO사업은 진단을 요하는 사업이고 또 개개의 사업 현장마다 여건이 틀리므로 인터넷상에서 일률적으로 수치를 집어넣어 절감량을 추출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도 에너지기저재 분야에서는 가격의 오름시 발생하는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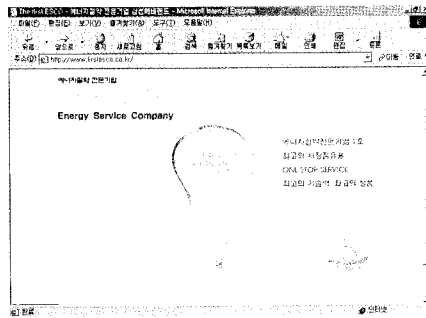




(주)베이스엔지니어링
김태연 본부장

www.baseeng.co.kr

홈페이지를 통한 회사현황과 홍보는 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적극적인 편은 아닙니다. 한 때 전자상거래도 구상을 했었는데 미땅한 수익모델을 찾지 못해 중단한 상태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ESCO사업의 전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삼성에버랜드(주)
황건희 팀장

www.firstesco.co.kr

지금 현재 모든 부문이 그렇지만 통신 측면에서 인터넷의 활용도는 높은 편이고 더욱 높아지리라 생각됩니다. 만약 인터넷을 통한 ESCO사업의 가능성을 추측한다면 원격시후관리 같은 경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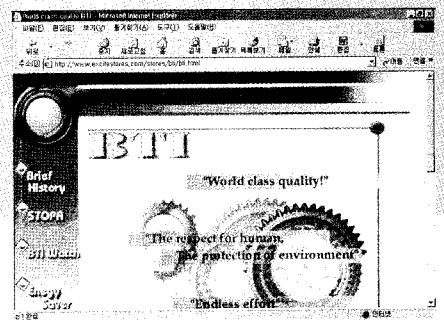
기존의 모델을 통한 사후관리 방식이 존재해 있는데 이것이 인터넷으로 대체됨으로써 경제성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활용한 ESCO사업의 전개는 방법론에 있어서 복잡하고 효율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합니다.

사업은 박자가 맞아야 하는데 그런 것을 원하는 고객이나 수요가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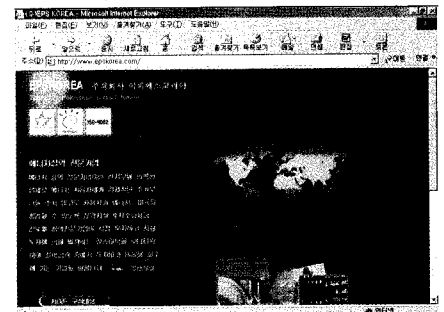
(주)비티아이

www.bt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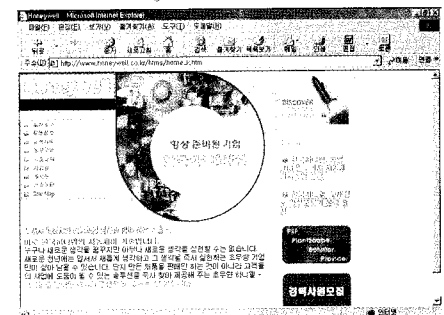
(주)EPS KOREA

www.epskorea.com



한국해니웰(주)

www.honeywell.co.kr



화인테크(주)

www.finetechballasts.co.kr

